

7/29/18

설교 제목: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함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10 장 9-15 절

- (호 10:9)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절관주** 호 5:8
- (호 10:10)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 (호 10:11)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멩을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절관주** 신 25:4
- (호 10: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 (호 10:13)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 (호 10: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 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절관주** 사 17:3, 호 13:16
- (호 10:15)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벳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영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복이 바알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따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 장 여섯 번째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호 10:9)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 때 부터 범죄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19-20 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첩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던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을 욕보이려다가 레위인 대신 내어준
첩을 밤새도록 윤간을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열 두 토막을 낸 뒤 이스라엘
사방에 보냄으로써 이 일을 전 이스라엘에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전 지파들은 모여
베냐민 자파에게 그 불량배 기브아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동족상잔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단지 600 명만 남고 멸족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방불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 10:10)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는 우상을 숭배 한 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한
죄입니다.

그들은 벵엘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며 바알을
따랐습니다.

두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또한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민을 곧 이방의 강대국들을 사용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호 10:11)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멩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당시에는 곡식을 타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에게 곡식을 밟게 하였는데 그때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것을 율법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가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북 이스라엘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고 율법이 허락한 복만 받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후로 가장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많은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더욱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우상숭배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멩에를 메우고 위에 사람을 태운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목'이란 북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를, '멍에'는 예속과 매임을,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운다'는 말은 곤고한 삶을 상징합니다.

멍에만 메워도 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기에 사람까지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가중되어 말할 수 없이 힘들겠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또한 '유다가 밭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고 합니다.

남 유대와 북 이스라엘 모두 포로 생활로 겪게 될 곤고한 삶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 10: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죄를 짓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강박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죄와 교만으로 묵은 땅 같이 단단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을 작정하셨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더 잘 살기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좀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피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것들은 목숨을 걸고 심고 또 심어 번성할지라도 종국에는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늘의 것들만이 썩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의 열매를 맺을 적기라는 말입니다.

농부가 적기에 씨를 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기를 놓치면 좋은 곡식을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앗마다 뿌릴 적기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을 적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적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 올 적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적기를 결정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라고 권유하면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좀 한가하면요" "후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모아 놓고요" "공부 다 마친 뒤에요"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형편과 나의 때를 고집합니다.

지금은 이것 저것을 해야 할 때니 안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겠다고 합니다.

내일 일도, 아니 바로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범하는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적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기경한다'는 말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발을 갈아 엮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호 10:13) 너희는 악을 발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의를 심는 대신 악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심어 죄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길과 그들의 용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을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돈, 지위, 명예, 부모, 형제, 남편, 자식, 친구 등등 의지하고 기댈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악을 심고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 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호 10: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 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호 10:15)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벤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의를 심는 대신 악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란함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지 않을 때 곧 회개하지 않을 때 멸망할 것입니다.

앗수르 왕 살만이 벤아벨을 훼파한 것 같이 이스라엘 산성들이 훼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살만은 살만에셀 3 세로 여겨집니다.

북 이스라엘은 살만에셀 5 세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앗수르 왕 살만에셀 5 세가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만에셀 3 세 왕 때 앗수르가 북 이스라엘 예후 왕과 싸워 크게 이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신인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지연되어 영원히 안 올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입니다.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후 3: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벧후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후 3: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 오냐고, 그것은 이미 이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말해 온 것인데 여지껏 오지 않았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여 준비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와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준비된 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준비된 자로 만들기 원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 주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복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복받은 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